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⑨ 억울한 사형수 한춘도

불륜이 빚은 억울한 사형수… 수감중 佛法에 귀의

"억울한 사형수 한춘도 씨를 살려주세요"

1991년 초 한 여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사형수 한춘도(40)가 억울하니 구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 씨는 정부(情婦)의 남편을 살해(공범)한 죄로 사형수가 됐다. 내가 한 씨를 만나게 된 건 당시 한 씨와 함께 복역 중인 여러 재소자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전화를 걸어온 그 여인은 한 씨와 함께 복역 중인 재소자의 부인이었다. 그 여인은 남편을 면회하면서 남편으로부터 한춘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남편의 부탁으로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1997년 한춘도 그가 형집행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나에게 결백을 주장하는 500여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 때의 한춘도를 생각하면 아직도 안타깝기만 하다. 잘못된 만남이 부른 비극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 부산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한 씨는 동료들과 부산의 한 카바레에 놀러 갔다가 임 여인을 만나게 됐다. 임 씨는 한 씨에게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됐고, 급기야 깊은 관계가 됐다. 불륜이었다. 한 씨는 처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를 맞는다.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했던 임 씨 역시 불륜이었다. 임 씨는 유부녀였다. 중동으로 취업을 나가 있던 남편이 귀국을 했고, 임 씨의 남편이 임 씨를 수상하게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들통난다.

어느 날, 한 씨가 임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낯선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돌아온 임 씨의 남편이었다. 임 씨는 그때서야 한 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밝혔다. 임 씨의 남편이 임 씨를 의심하게 되면서부터 임 씨는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손찌검까지 당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어느 날, 임 씨는 한 씨에게 청산가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임 씨는 남편이 외국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시력이 안 좋아졌다며, 눈을 치료하기 위해 시골로 요양을 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꿩이 많아 보양으로 쓸 꿩을 잡는 데 쓰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한 씨도 구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 거절했으나 임 씨가 몇 차례 더 부탁을 하자 할 수 없이 청산가리를 구해준다. 그 청산가리가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임 씨는 그 청산가리로 꿩을 잡은 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다. 그리고 임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병사로 신고를 했고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 그런데 임 씨 남편의 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고 임 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임 씨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는데, 문제는 한 씨도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것이다. 청산가리가 문제였다. 임 씨는 의심의 여지없이 사형이 확정된다. 그리고 한 씨는 1심에서 범행 실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삼중 스님(좌)이 한춘도의 가족들을 자비사로 초청해 위로하고 있다.

청산가리 구해준 죄로 살인 누명
"佛法 좀 더 일찍 만났다면…"
"법 집행 책임 있고 신중해야"

무기징역을 받는다. 하지만 기소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한 씨 입장에서 무기징역은 말도 안 되는 결과였다. 한 씨는 당연히 항소를 했다. 그런데 이번엔 그 항소가 문제가 되었다.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이 더해졌다. 한 씨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한 남자의 인생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된다.

한 씨가 사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임 씨의 번복된 진술 때문이었다. 처음 임 씨의 진술은 한 씨가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임 씨가 범행을 한 씨와 공모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나중에 들으니 수사기관과 연관이 있었다. 경찰은 한 씨를 처음부터 공범자로 확신했고, 그 확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임 씨의 진술을 유도했던 것 같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한 씨는 사형 확정판결이 난 후 각계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다. 그중 한 씨의 결백에 공감하게 된 재소자들도 나섰고, 마침내는 나와 만나게 된 것이다.

한 씨는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스스로 머리를 깎고 계와 불명을 받아 불법(佛法)에 귀의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교화'에 앞장섰다. 그런 한 씨의 모습은 같은 재소자들에게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한 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재소자들 중에는 출소한 후에 한춘도의 구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고 했다.

나는 한 씨가 한 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인 불륜으로 사형수에 이르게 된 것은 법과 그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들이 좀 더 신중했다면, 한 씨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었다면 한 사람의 인생은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법무부에 두 차례나 집행연기를 신청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부산변호사회가 재수사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한 씨는 1997년 12월 30일 형장에서 세상을 떠났다.

긴 세월 여러 재소자들을 위해 구명과 교화를 해왔지만 사형수 한춘도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연 중의 하나다. 그가 부처님 법을 좀 더 일찍 만났다면 그는 아마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멀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길이 아닌 길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면 그런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전하는 일이 불사 중의 불사인 이유를 또 한 번 깨닫게 한 인연이었다.

정리=박재완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⑨ 활성스님 · 소윤아가





스님은 법이다.
고요한 소리를 보고 듣고 삼키신다.

나는 따라쟁이다.
밥짓는 소리로 향기로 뜸을 들인다.

◀





태어나는 것도 인연
만나는 것도 인연
떠나는 것도 인연
인연을 맺고 인연의 끈으로 인연을 불러옵니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손녀
아가의 웃음이 식구를 자석처럼 빨아들입니다.
아가의 존재는 가족을 한데 묶는 강한 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땡큐. 땡큐 보살입니다.
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

